



업들의 성장이 둔화 내지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지식과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다른 국가들보다 어느 정도 빨리 개발해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지식기반산업은 기존 일부 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다양화하여 일시적인 대내외 여건변화에 전체 수출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안정된 수출구조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는 제조업 뿐 아니라 영상, 게임, 데이터베이스 등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에서도 새로운 수출유망 산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수출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수출채산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지식기반산업은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육성이 필요하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산되는 실업자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의 동인을 가지는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하다. 기존 제조업에서는 핵심역량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 금융기관의 경우도 대형화를 위한 합병과정에서 점포축소와 인원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유망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늘어나는 실업자를 흡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에서 지식기반산업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80년대의 강도높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나 90년대 들어 지식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장기호황을 구가하면서 실업자를 흡수해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진 바 있다. 미국은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을 통해 소위 고성장-저실업의 신경제를 구가한 것이다.

소비구조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식기반산업이 필요하다. 소득과 지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요도 점차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지 않고는 산업과 기업이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제 양산기술에 의한 소품종대량생산 체제는 다양화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맞게 되었다. 최근들어서는 소비자들의 섬세한 욕구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다품종소량생산 체제가 더욱 바람직하게 되었으며, 이는 인간의 창의성에 바탕을 둔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통해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확고한 정책비전제시와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중요하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지식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생물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몇차례 피력한 바 있다. 이 의지가 강력하게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지식기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 등을 촉진하는 정부의 인프라 조성도 중요하다. 지식의 창출을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의 개혁이 중요하다. 암기위주의 학교교육을 개선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뿐 아니라 교육훈련 기관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연구개발 시스템의 구축도 중요하다. 지식의 확산을 위해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지속적 구축 등 정보통신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전자상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보완도 필요하다.

지식의 활용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며, 기업의 지식경영을 촉진하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